

# 한국-케냐 해사·수산분야 협력 논의

-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, 케냐 해사부 차관과 면담 -

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12일(화) 세종정부청사에서 제프리 에이야 나이 카이투고(Geoffrey Eyanee Kaituko) 케냐 해운·광물·청색경제 및 해사부 차관과 면담했다.

이번 면담에서 송 차관은 케냐에서 관심이 있는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(Program) 등 해기사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, 케냐가 우리의 중요한 수산 협력 파트너(Partner)임을 강조하며, 케냐 배타적 경제수역(EEZ) 입어와 소규모 어항 인프라(Infrastructure) 확보 등 어업 분야도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. 두 차관은 양국이 해사·어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였다.

또한, 송 차관은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에 케냐 해사부를 초청하면서, 양국이 해양·수산 전반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.

케냐 카이투고 차관은 케냐 정부도 청색경제 등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기존의 해사청과 수산청을 합쳐 2022년 8월 통합부처인 해운·광물·청색경제 및 해사부를 설립하였다고 소개하였다.

송 차관은 비슷한 설립 역사를 가진 두 부처가 만나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, “이번 면담이 해사·수산·항만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서진희 (044-200-53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지언 (044-200-5342)
	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	책임자	과 장	고경만 (044-200-5360)
		담당자	사무관	양동곤 (044-200-5361)